

평범한 일상 가격한 범죄...지역민 불안에 떨다

올해의 광주·전남 이슈

〈3〉 '흉악 범죄'로 얼룩진 광주·전남

'묻지마 살인', '유형업소 이권 다툼 칼부림' 등 올해 광주·전남지역이 흉악범죄로 얼룩졌다.

아파트 폭도, 변화가 등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잇따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25일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3분기(1-9월)까지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1001건(광주 471건, 전남 53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살인 18건, 강도 26건, 강간 199건, 방화 65건 등이다.

지난 9월 순천에서 귀가하던 10대 여성이 '묻지마 살인'에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도 이 중 하나다. 이 사건으로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신상이 공개된 박대성(30)은 9월 26일 새벽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은 공분했다. 박씨는 경제적 궁핍, 가족과의 불화 등 개인적인 불만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검정고시에 합격해 올해 대학 입학할 앞둔 상황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슬픔에 잠겼다. 박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술을 마셔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살인과 살인에비 혐의를 기

순천도심 '묻지마 범행' 10대 여성 살해 '치료 불만' 치과병원서 사제 폭탄 터뜨려 칼부림으로 번진 유형업소-보도방 갈등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1000여 건

소된 박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의 선고는 내년 1월 9일 예정돼 있다.

광주 도심에서도 살인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9월 9일에는 출근시간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목 부위에 자상(베인 상처)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용의자는 오랜 직장 동료 사이였던 A(50)씨였다. A씨는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집 현관을 나서자마자 둔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받던 중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횡령범으로 모함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월 29일 서구 양동의 폐업한 숙박업소에서는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에 침입한 B(61)씨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이다. 범원은 지난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는 점을 고려해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달 '보도방(유형업소 접대부 공급)' 전·현직

업주들 간의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산구 월계동 한복판에서 전직 보도방 업주 C(57)씨가 현 보도방 업주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한 것이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데다 불법 성매매가 연

관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월계동 침단지구 유흥가에서 최근 접객원 수요가 급증하면서 접객원을 공급하는 보도방 업주들과 유형업소 업주들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C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대기하던 한 치과에서는 사제폭탄이 터지기도 했다.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택배 상자가 폭발했다.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건물 내에 있던 환자 등 95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폭발한 택배상자는 D(78)씨가 인화물질과 부탄 가스 등으로 직접 제작한 '사제폭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이 병원에서 보철치료를 받았던 D씨가 치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D씨는 택배를 배달하는 것처럼 폭발물을 담은 종이 상자를 병원 출입문 인근에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법원은 D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눈썰매 타러 오세요 성탄절인 25일 광주시 북구 패밀러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도주 차량, 총 한발로 위치 파악

시스템, 발사부착탄 개발...구호품 전달·인명 구조에도 활용

위험을 무릅쓰고 추격하지 않아도 교통사고 뺨소니 차량이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발사하는 동시에 넓게 펼쳐져서 착 달라붙는 접착 기술이 적용된 부착탄을 차량에 쏘면 '발사부착탄'에 장착된 위치추적기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2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스트)에 따르면 기계로봇공학부 이종호 교수 연구팀이 얇고 넓게 펼쳐지는 탄성 접착제를 이용한 고성능 전자기기를 발사해 목표물에 안정적으로 부착 및 유지시키는 회전 펼침 부착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탄성접착제는 고무와 같은 탄성을 가진 접착제, 고성능 전자기기는 특정한 기능이나 목적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전자 장치다.

이번 연구 결과는 물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곳이나 이동 중인 차량 등에 최대 10m 거리가

지 전자기기를 발사하고 부착시킴으로써 위치 추적, 무선 모니터링, 구조 활동 등의 긴급 상황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시속 60km로 주행 중인 차량 후면에 위치추적장치가 탑재된 발사부착탄을 발사·부착시켜 실시간 위치 정보를 추적하고 도심, 고속도로, 커브길 등 다양한 주행환경에서도 발사부착탄의 부착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발사하여 연결 하듯 발사부착탄에 끈을 연결한 발사·부착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위급 상황에서 구호품을 전달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종호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발사부착탄에는 다양한 전자기기(GPS, 통신, 카메라, 센서 등)를 장착할 수 있어 향후 치안, 재난안전, 국방 및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적발

전남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 어선 A(106t급·선원9명)·B(60t급·선원9명)호 등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불집했다고 25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영광군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포획 금지 기준보다 작은 용가자미 145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B호도 전날 오후 2시 20분께 신안군 흑산면 흥도 인근 해상에서 폐위장소(선박의 격벽·갑판 덮개로 덮여있는 장소) 용적수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어획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우리 수역에서 어로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수산자원의 크기, 또는 무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추가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27일부터 눈 오고 기온 '뚝'

광주·전남에서 주춤했던 강추위가 27일 눈이 내리면서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오전까지 광주·전남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4-1도·최고 5-9도)보다 다소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이날 밤부터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해 27일부터 다시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다"고 25일 예보했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0-6도·낮 최고 6-9도에 분포하겠고,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4-1도·낮 최고기온은 3-7도로 뚝 떨어지겠다.

또 27일 새벽과 오전 사이 담양과 장성 등 전남 북서부 지역에 1-5cm, 이밖의 광주·전남 지역에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다. 일부지역에는 1-5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와 눈은 일요일인 29일까지 내렸다 그쳤다가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27일 전남 북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설특보 가능성 있겠으니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있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찾아가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